

독서새물결운동과 도서관의 연계방안

이 경 구

〈국립중앙도서관 열람봉사과장〉

목 차

1. 범국민 독서새물결운동
2. 도서관 등의 독서기반시설 현황
3. 독서새물결운동과 도서관의 연계를 위한 조건
4. 결론

도서관은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에 이바지 함을 목적(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조)으로 하여 사회적 장치이며, 이를 가능케 하려면 정보센터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한다. 도서관은 범람하는 정보의 유통과정의 중앙에 위치하여 직·간접으로 그 수요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보획득 수단으로서의 독서문제는 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독서문제가 도서관에서 다소 소홀히 취급되는 것은 독서의 교육적 측면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도서관이 독서 문화의 핵심적 기관으로 육성되어 있지 않은 탓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도서관이 독서문화의 중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범국민 독서새물결운동에 적극 참여를 전기로 삼아 스스로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으로 믿는다.

1. 범국민 독서새물결운동

가. 배경

범국민적 독서운동은 정부 또는 민간단체에서 수십년전부터 산발적으로 계획, 전개되어 왔으나, 그 어느것도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경제 제일주의와 안보적 상황논리에 지배되어 왔던 과거의 사회적 분위기는 물론이거니와 대학입시

위주의 파행적 교육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도서관이나 독서문제를 담당하여야 할 정부 부서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독서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지 못할 수 밖에 없었다.

1991년 문화부가 발족되고 도서관 정책이 교육부로부터 이관됨에 따라 이미 문화공보부 때부터 관장해 왔던 출판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독서운동은 내실있게 전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되어 표방한 정부시책이 추진되면서 범국민독서운동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문화체육부는 1993년을 책의 해로 정하여 도서관의 창달과 독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그의 제도적 장치로 독서진흥에 관한 법률을 입안,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제정하고, 범국민 독서운동의 일환으로 독서새물결운동을 시작하였다. 이 독서새물결운동은 국민의 건전한 독서생활을 통하여 국민의식을 개혁하고, 책을 읽는 사람이 이끄는 문화 시민상을 정립하여 참다운 문민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운동으로, 범국민독서새물결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독서진흥을 위한 범국민독서새물결 5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나. 기본방향

- 1) 국민독서 생활화 운동의 추진주체로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범국민독서 새물결운동 추진위원회」를 각계의 저명인사와 도서관 및 관련 사회 단체가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체로 구성 운영하여
- 2) 연령별, 직업별 등 각 계층에 알맞는 다양한 독서운동을 도서관, 문고 등의 공간을 통하여

전개하는 한편,

- 3) 전 국민이 읽고, 쓰고, 생각하는 능력의 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한 독서운동으로 추진하고
- 4) 사업의 개발과 기존 독서운동과의 연계 활동 및 중복사업을 조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조기 독서교육에 역점을 두고 청소년 선도, 주부의 여가선용, 노인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독서운동과 연계, 조명코자 하고 있다.

다. 추진경위

1993년 6월 범국민 독서새물결운동 5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9월에는 「범국민 독서새물결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12월에 위원회의 임원을 추대·영입하고, 1994년 2월 25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범국민 독서새물결운동의 출범식을 갖게 되었다.

라. 범국민 독서새물결운동 추진위원회

민간인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독서새물결운동의 중추기구로 교육계, 출판계, 정계, 언론계 등 각계 각층의 지도급 인사가 망라되어 있으며, 전체적 운동 방향과 기본 사업을 수립·추진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단체의 독서운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2인, 집행위원장 1인, 고문 16인 등 3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 집행기구는 사업추진분과, 도서관분과, 독서단체분과, 출판홍보분과, 청소년·농어촌분과의 5개 분과를 두고 있다.

마. 범국민 독서새물결 5개년 사업계획

1993년 1차년도로 1997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그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1993년은 “출발의 해”로 독서운동추진의 기초환경을 조성하고
- 2) 1994년은 “발전의 해”로 독서하는 사회 분위기를 정착하는 한편
- 3) 1995년은 “확신의 해”로 책을 독서하는 사회 분위기를 정착하는 한편
- 4) 1996년은 “성숙의 해”로 독서 선진국가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 5) 1997년은 “정착의 해”로 책을 읽는 국민이 이끄는 사회를 실현한다.

바. 기본사업의 방향

- 1) 독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 2) 독서대상을 개발하는 사업을 전개하며,
- 3) 독서정보를 안내하며,
- 4) 독서 생활화 사업을 벌이며,
- 5) 독서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 및
- 6) 청소년 독서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주요사업내용

21세기를 대비한 청소년 독서아카데미, 독서캠프의 운영, 독서지도 교사 워크숍의 개최, 권장 도서의 보급, 작가초청대화, 해외 동포에게 사랑의 책 보내기운동, 독서왕 선발 및 독서사진 공모전, 독서지도 지침서 및 독서 새물결운동 소식지 발간 등 여러가지 사업을 통하여 독서 새물결 운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2. 도서관 등의 독서기반시설 현황

범국민 독서새물결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독서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국민들에게 읽혀질 책을 생산하고 이를 적절히 독자에게 공급하며, 올바른 독서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반 조건을 조성하는 일이 바로 독서 환경조성의 요체가 될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독서환경을 조성키 위한 책의 생산과 유통에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점은 생략하고, 주로 책을 읽히기 위한 환경, 특히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만을 집중 검토하기로 한다.

도서관은 범국민독서생활화를 정착키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며, 그 중에서도 연령,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주민들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이야말로 독서 문화의 가장 기본적 장치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공공도서관 및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면서 규모가 적은 여러가지 독서기반 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므로써 독서새물결운동과의 연계문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가. 전국 공공도서관 현황

1994년 현재 300개에 불과한 공공도서관의 수나 기준의 50%에 채 못미치는 사서직원의 배치현황, 도서관 운영비의 7% 정도에 불과한(1993년의 경우 전국 총 60억원 정도) 자료구입 예산의 영세성 등은 독서 기반시설인 공공도서관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현시점의 조건 속에서 독서새물결운동에 관한 문제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

전국 공공도서관 현황

(’93.12.31 현재)

시도별	공공도서관							
	계	공립		시립	1관당 인구	1석당 인구	1인당 책수	직원수
		시도	시도교육청					
서울	27		20	7	391,733	385	0.22	1,071
부산	15		13	2	257,154	357	0.20	366
대구	8		8		286,055	241	0.29	276
인천	7	1	6		250,625	225	0.18	239
광주	6	2	3	1	193,762	158	0.29	221
대전	7	5	2		150,256	120	0.30	166
경기	36	25	9	2	165,845	318	0.11	288
강원	28	4	24		60,786	152	0.24	242
충북	14	2	12		100,526	225	0.19	106
충남	21	2	19		95,365	288	0.12	127
전남	22	5	16	1	98,062	269	0.15	115
전북	28	8	20		96,045	245	0.16	183
경북	39	10	28	1	77,121	236	0.20	269
경남	35	5	29	1	105,785	203	0.18	408
제주	7	3	4		73,849	183	0.83	81
계	300	72	213	15	146,158	262	0.19	4,158

자료 : 문화체육부 「전국 공공도서관 현황」 1993

1) 이동 도서관

도서관 이용에 따르는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이동 도서관은 그 성격이나 운영방법이 가장 지역주민과 밀접해 있다.

이동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서 77대, 새마을문고에서 86대를 설치,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동도서관 운영 현황(공공도서관)

(’93.12.31 현재)

시·도별	이동도서관수	이용자수(명)	이용책수(권)
서울	20	52,634	337,746
부산	9	27,576	89,542
대구	4	75,150	210,007
인천	2	21,252	63,639
광주	5	32,531	55,750
대전	1	25,091	56,596
경기	4	33,025	238,216
강원	7	17,641	78,573
충북	3	30,740	84,410
충남	4	13,320	35,645
전남	1	10,117	21,830
전북	3	23,476	59,631
경북	5	12,288	53,843
경남	7	59,461	137,050
제주	2	7,840	17,655
계	77	442,142	1,540,133

이동도서관 운영 현황(새마을문고)

(’93.4월 현재)

시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86대	26	12	7	6	4	5	13	1	1	1	2	1	2	4	1

2) 대출문고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 일정량의 도서관 장서를 특정장소(학교, 관공서, 단체, 상가 등)에 보내어 그 장소를 봉사 거점으로 삼아 이용시키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른 책으로 교체해 주는 봉사 방법이다.

대출문고는 순회문고, 배본소, 기탁소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왔는데, 도서관및독서진흥법 21조 3항에 따라 대출문고로 공식화되었다.

대출문고는 외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현장에는 그 활동이 매우 미미하여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한다.

나. 문고

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법 제5조의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독서시설을 문고라하며(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 제2호) 공립문고와 사립문고가 있다.

새로 제정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따라 문고의 법적지위가 확보되었는데, 그 시설기준은 면적 33m이상, 열람석수 6석 이상, 장서량 1,000책 이상이다. 그동안의 문고로는 새마을 문고가 대표되고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운동의 차원에서 설립되어 공공도서관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육성되어 왔다.

그러므로, 문고가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 제40조 제2항에 명시한 것처럼 공립문고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써 지도, 지원을

받아 운영되도록 제반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다. 작은 도서관

전국의 지역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주민의 필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주민이 손쉽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독서환경을 조성, 국민독서생활화를 이루고자 하는 소규모 시설을 말한다.

1994년 3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1회 작은도서관 전국협의회를 개최,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으며, '94년 3월 현재 669개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3. 독서새물결운동과 도서관의 연계를 위한 조건

가. 몇가지 전제

독서 새물결운동이 앞서 언급한 여러가지 독서기반 시설과 연계되려면 몇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첫째, 독서자료는 그 소장처에 관련없이 모든 독자에게 손쉽게 공급되도록 도서관간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또는 기업 등으로부터 안정적 재정지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독서지도 및 독서기반 시설을 원활히 운영할 전문인력이 육성되어야 한다.

넷째, 훌륭한 독서 자료를 생산, 유통시킬 수 있도록 출판 및 유통업계가 발전되어야 한다.

다섯째, 독서 자료를 국민에게 적절히 안내할 수 있도록 각종 서지개발 등 홍보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중에서도 안정된 재정적 지원과 적절한 인력의 수급 및 사업을 전개할 체계적인 조직체의 정비는 효과적인 독서새물결운동의 확산에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생각된다.

나. 연계성의 문제점

독서새물결운동이 도서관과 효과적으로 연계되려면 첫째로, 독서기반시설 상호간의 운영체계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진술한 대로 독서기반 시설에는 도서관(특히, 공공도서관), 문고, 작은 도서관 등이 있으나, 이들간에는 아직은 어떠한 연결고리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 어느 것도 결국은 그 기능면에서 도서관 활동을 하는 것임으로 하나의 봉사체제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나 현실은 그런것 같지 않다. 제각기 나름대로의 활동을 전개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긴 하지만, 이들이 서로 연결될 때 그 상승효과는 매우 크리라 생각된다.

법에서 제시한 것처럼 공립문고의 경우 그 지역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서 지도·지원을 받아 운영토록 되어야 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공공도서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고 공공도서관은 이를 통하여 인적, 물적 조건을 구비함으로써 문고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때 유의할 사항은 공공도서관이나 문고측에서는 자관의 이해관계보다는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확산일로에 있는 작은도서관 운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연계를 생각하여야

하고, 공공도서관도 이의 포용을 폭넓게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법적 장치인 문고와 정비도 보다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는, 독서새물결운동을 받아 들이는 도시·농촌간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도시화 현상에 따르는 농어촌 인구 및 취락구조의 변화는 독서기반 시설의 설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농어촌 즉, 군단위 이하의 도서관은 그 위치나 규모, 봉사 내용 등이 과거의 그것과는 달라야 한다. 큰 규모의 도서관 보다는 최소의 취락 단위까지 봉사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이동도서관, 대출문고 등의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출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청·장년층의 이농현상에 따라 농어촌을 지키게 된 노인들에 대한 독서환경의 조성은 그들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여 보다 치밀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현 사회에 있어서의 도시 문제는 농어촌으로 부터의 인구유입으로 말미암아 보다 복잡해지고 대형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산업구조도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를 띠고 있어 그들의 일상생활은 단편적, 충동적, 편의적으로 흐르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독서보다는 TV 등의 매스컴에 의해 정보와 오락을 얻고, 이것으로 여가활동을 대신하려 한다. 이곳에 한권의 책을 던져 넣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성공하면, 파급효과가 클 것이므로, 면밀한 연구와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대학 입시제도를 비롯한 교육환경의 변화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객관적 위주의 과거의 입시 관행에서 벗어나 논술형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독서 환경의 조성에도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독서 습관은 어릴때부터 형성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비추어 볼 때 교육환경의 변화는 독서새물결운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그리고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넷째는, 독자에 대하여 연구하는 일이다. 활발히 독서를 하는 독자이거나 독서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잠재적 독자들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연령별, 직업별, 계층별, 학력별 구성 분포와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들의 독서를 하기 위한 일상생활의 환경 상태가 어떤 것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독서하는 시간수와 시간대, 독서장소, 여가시간 등을 분석하여 하루의 생활속에 일정한 독서 시간을 가지게 하여 독서가 생활화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4. 결 론

지금까지 독서새물결운동과 도서관의 연계에 대한 여러가지 전제 조건과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앞서 언급한 여러가지 조건들은 독서새물결운동이 독서 기반시설인 도서관에 효율적으로 연계되기 위하여 미리 점검하고 정비할 사항들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조건의 충족이 없이는 독서새물결운동의 확산과 정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믿어진다.

책은 만들어져야 하고 읽혀져야 한다. 보다 확실한 진실은 읽힌다는 전제없이 책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책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책을 만들어 독서의 동기를 부여하고 독서 기반시설인 도서관은 책을 만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현상황에서 독서새물결운동의 주관 당사자인 출판계가 할 일은 이 운동의 효과적 전개를 위해 도서관의 장점(조직면이나 경험 등)을 십분 활용하

고, 도서관은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상호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분명한 것은 이 운동의 성격상 양자의 확고한 연결고리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역할로서도 이 운동의 성공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이를 지원하고 재정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일 등, 독서 기반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가 농어촌 특별세를 활용, 10개년(1995~2004)계획으로 840억을 투자하여 100개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100억원(년 10억원)을 도서관입비로 지원토록 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서관이 발전해야 출판계가 발전하며 수많은 읽힐 자료가 생산된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독서새물결운동이 전개된다면 어떠한 장애도 능히 돌파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 고 문 헌〉

- 국민독서 생활화 방안연구: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2.
- 公共圖書館과 마을文庫와의 協力圈 模型에 관한 研究/李始榮 著, 淸州大學校, 1988.(석사학위논문)
- 도서관 현상을 통해 본 공공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인식의 문제/김영기 저, 부산대학교, 1993. (석사학위논문)
- 讀書振興에 關한 年次報告書/文化體育部, 1994.
- 독서 새물결 소식<출판문화 특별부록> 동권 1-3 /독서새물결추진위원회, 1994.